

곡성 멜론, 융복합화 생산능가 역량 강화

체험센터 · 멜론마을 조성...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회에 걸쳐 멜론 생산 농가들과 함께 선진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멜론생산농가들은 전남도 체험관광 선진지인 구례군의 지리산과 하나되기 농장 및 산수유마을, 보성군 심상농원과 대한다원 등을 둘러보며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참여 의지를 높였다.

사업단 관계자는 "멜론 생산만 생각하던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곡성멜론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올해부터 조성될 곡성멜론 융복합체험센터와 멜론마을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더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곡성군이 지역 대표 소득 작목 곡성 멜론의 융복합화를 위해 생산 농가 역량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 2년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멜론농촌 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은 핵심사업으로 곡성멜론융복합체험센터와 멜론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사업단은 조성 이후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들의 주도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과 19일-20일 2



이 꽃 지면 추수시작

지난 26일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 백련사 배롱나무의 백일홍 꽃이 낙화를 시작해 추수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백일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 백일홍이 지면 가을이 들어 버를 수확한다고 전해진다.

완도수목원,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장흥 · 해남 · 강진 · 완도 주민 25명 대상

완도수목원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9월3일 부터 10월29일까지 정원관리사 양성 기초교육에 나선다.

이번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은 '전라남도 정원 · 휴양문화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올해 도입했으며, 완도수목원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전남도로부터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은 9월3일 오후 2시 입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6시까지) 4시간 동안 이뤄진다.

총 60시간이론 20시간, 실습 40시간에 걸쳐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이해, 정원수목의 종류와 활용, 정원설계 및 조성, 병해충, 가지치기 등 기초교육을 한다.

교육생은 자치단체 자체 선발을



통해 장흥 · 해남 · 강진 · 완도지역 주민 25명이 모집됐다. 교육은 전역국비로 추진되며 출석(80%)과 필기 및 실시 시험 등을 통해 60점 이상 취득해야 수료할 수 있다.

올해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2020년 심화교육 7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정원 분야에서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라남도 정원관리사' 인정이 수여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순천시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보전 노력"

국내외 전문가-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회의 개최

순천시는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한반도 두루미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 두루미류 보호 의지를 다졌다.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두루미류의 서식지 상황을 공유하고 두루미 보호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또 한반도 두루미종과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핵심 전략 15가지를 담은 '순천만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서식지 보호와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실정에 맞

는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들에게는 두루미류 보호에 힘을 합쳐줄 것과 두루미 네트워크 및 교육 참가, 월동지나 휴식지의 먹이공급 활동 등을 제안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는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의 주변 농경지와 강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확대 등록하고 세계적인 두루미류 서식지로 보전하고 있다"며 "한반도 두루미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산강 자연성 회복 · 지역상생 모색 토론회

영산강 보 해체를 두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이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오후 2시 전남 나주시민회관에서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역상생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나주시방시민회,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하천 살리기의 과정과 결과로 유역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지속가능한 하천복원과 보전에 있어 유역민의 참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가 '시원지부터 하구까지 영산강 건강성 회복 방안'을 발표하

고,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는 '보해체 그리고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재현 지역문화관광연구소 소장은 '주민참여형 영산강살리기 : 유역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발표 뒤에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6월 물관리기본법이 발표되면서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와 협력 바탕으로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의 보해체 방안은 이수과 치수 등 강의 기본기능을 회복하고 물과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보해체 이후 지류를 포함한 강 살리기 방안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채,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지급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문의 전화 1577-7770